



업체만 배불리기 보조금 대부분 농자재 업체·인증기관 차지 농민은 자포자기 고생해 봐야 돈 안되고 부실인증 피해까지

전남 친환경농업 포기 속출 왜

힘들게 고수해온 친환경 농업을 스스로 저버리는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젊은 일꾼들은 모두 떠나 혼자 농사짓는 마당에 '먹고 살 수 있다'며 힘들게 유지해왔지만 더 이상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게 친환경 농업 대신, 관행 농업을 선택하는 농민들의 입장이다.

농업 개방화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친환경 농업을 농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민 스스로 친환경 인증을 포기한 사례와 별도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가 검사 과정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나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전남에서만 올 8월까지 2611건

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인증 취소 건수(5133건)의 절반(50.86%)을 넘어선다.

전남의 경우 친환경 농업을 추진했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지난 2012년 4371건, 2013년 4149건 등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올 상반기 취소된 농가 중에는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뒤에도 농약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1698농가가 포함돼 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원칙도 세우지 못한 채 막연히 '남들 다 하니 나도 한번 해볼까', '돈 된다더라'라는 생각만 갖고 뛰어 들었던 농가들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 가짜 친환경 농산물이 끊이지 않는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 판로를 찾기 힘든 점도 농민들의 포기

민간인증기관 20곳 중 올 11곳 부실인증 적발 친환경농산물 신뢰 잃어 단속 강화에 인증 반납사태

언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급식 등을 제외하면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고 도매시장 등에서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친환경 쌀 재배만 하더라도 관행 농업에 비해 노동력과 생산비가 두 배이상 들지만 정작 시장 가격은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게 농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데 농민들이 대부분인 농가에서 친환경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점도 한 이유다.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농일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하지만 노인들이 많은 전남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영농일지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접근, 영농일지를 허위로 대필해줬다가 적발된 인증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친환경인증 업체들은 더 나아가 정부·전남도 등의 지원금이 많은 사실 지원비를 더 타내기 위해 의지도 없는 농민들을 부추기는 경우도 생겨났다.

지난해 국비 등으로 지원된 친환경농업 사업비는 764억4400만원. 지원금의 68.2%가 친환경 시설 지원을 하는 업체에게 지원되다보니 비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20곳 중 11곳이 부실 인증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아예 건물·축사·저수지 등 재

배가 불가능한 땅에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가 하면, 잔류농약이 검출됐음에도 눈 감아 주거나, 재배지가 아닌 근처 야산에서 채취한 토양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았다.

관리 책임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농촌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차별화된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기는 커녕, 인력 부족을 내세워 어슬픈 친환경 인증정책을 유지하는가 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없이 무늬만 친환경 농산물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농업전문가들은 차제에 농민들에게는 판로 걱정없이 밭고 생산에만 의지할 수 있는 시장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가짜 친환경 농산물이 발붙일 수 없는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 어린이집 입소 대기 46만명

광주 2838명·전남 3971명
국·공립은 7.8배나 어려워

국회 보건복지위 김제석 의원(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입소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2830곳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46만 3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만2917명, 경기 10만2026명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입소대기자가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어 부산 3만182명, 인천 1만9086명, 제주 1만606명, 울산 1만98명, 충남 9803명, 대구 9326명, 경남 8579명, 대전 8244명, 충북 8046명, 강원 6588명, 경북 6364명, 전남 3971명, 전북 3495명, 광주 2838명, 세종 101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는 바늘구멍과 마찬가지로.



대초천 도랑살리기 걷기대회

광주시 남구는 14일 대초천 일원에서 환경 단체 회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초천 오염지류 도랑살리기 걷기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대초천 수계의 도랑과 지천 등 3km가량을 걸으며 수질보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남구 제공>

폭력 휘두르며 저항 중국어선 기관장 구속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송 호우 모어 중국어선장이 지휘한 197t 노영어 50987호

기관장 우추원빈(34)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14일 노영어호 기관장 우모씨에 대해 EEZ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경이 신청

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 기관장은 중국어선이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고기를 잡

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어구 관리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씨는 EEZ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1억2천만원을 미납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사립 초등학교 수업료 혁! 1000만원

서울 우촌초교 연간 1002만원

초등학교 수업료가 1000만원을 넘는다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박종근 재정지민추진위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 사립 초등학교 학교납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 우촌초교 연간 교육비는 1102만원(입학금 100만·수업료 1002만원)으로 전국 76개 사립초등학교 중 가장 비쌌다. 연간 수업료 800만원이 넘는 초등학교도 서울에만 8개가 있었다. 광주 사립 초등학교인 살레시오초교는 입학금 100만원 등 580만원, 송원초교는 70만원 입학금 등 4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

광주 1명·전남 2명 불과

광주·전남이 소비자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조직·인력·예산 등 행정 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지역 소비자행정 현황'에 따르면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광주 1명, 전남 2명(임기제 1명 포함)에 불과했다. 소비자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도 1명씩이었다. 상담원 1명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광주가 1737건, 전남이 503건에 달했다. 광주·전남 소비자생활센터의 상담원은 민간단체 파견직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상담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올해 소비자행정 예산은 16개 시·도 중에서 전국 꼴찌인 2000만원이었다. 광주는 소비자행정 예산이 5년째(4447만원)로 적었으며 전국 평균예산은 1억7318만원이었다. /백희준기자 bhj@

송대관·아내, 사기 혐의 실형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병찬)은 14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68)·아내(61)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재판부는 이날 "송대관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아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010-6670-2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 | | |
|---|---|
|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
|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신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
할인 → 2억7천

010-6732-9700

목포 전원주택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금호타운 APT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팀
과수원
매가 3억 1천
할인 → 2억7천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 → 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062)527-76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군/리/시/설
· 광주 북구 양산동 (토지774㎡,건1031㎡) 감평가16억1천 / 최자가 11억3천 (신건)투자적합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건1992.57㎡) 감평가 24억7천 최자가 13억8천 (유찰1회)투자적합
· 목포시 삼학동 (토지221.5㎡,건548㎡) 감평가 3억7천
· 진도군 성대리 (토지49㎡,건89.02㎡) 감평가 8천6백 / 최자가 4천8백 투자적합
군/리/주/택
·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197㎡,건362㎡) 감평가 3억8천 / 최자가 3억8천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임동 (토지126㎡,건178.61㎡) 감평가 1억6천 / 최자가 9천2백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동구 학동 (토지235㎡,건436.74㎡) 감평가 3천6백 / 최자가 3천6백 투자적합
· 광주 북구 본촌 (토지36.67㎡,건72.74㎡) 감평가 3천9백 / 최자가 1천4백 투자적합
숙/박/시/설
· 광주 서구 양동 (토지176.9㎡,건481.16㎡) 감평가 2억7천 / 최자가 1억5천 투자적합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478.7㎡,건928.74㎡) 감평가 8억 / 최자가 5억6천 투자적합
오피/스/텔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6.6㎡,건24㎡) 감평가 2천4백 / 최자가 2천4백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42.826㎡,건190.68㎡) 감평가 3억5천 / 최자가 1억 (유찰5회)투자적합
공 장
· 광주 광산구 하남동 (토지1734㎡,건2635㎡) 감평가 14억 / 최자가 8억(유찰1회)투자적합
대 지
· 광주 광산구 쌍림동 (토지3974㎡) 감평가 44억 / 최자가 44억 투자적합
· 광주 북구 용봉동 (토지1787㎡) 감평가 1억3천 / 최자가 7천3백 (유찰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공, 설계, 부동산 관련 전제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경리구함

(주)대신 010-6670-9800